

‘회령포 문화축제’ 승리의 역사 재현



지난 13일부터 15까지 3일간 장흥군 회진면에서 개최된 2017 회령포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회령포에서 시작된 열두척의 기적’이란 주제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리의 기포지 회

령진성을 재조명한 문화축제로 개최됐다.

축제는 지난 9월 15일 난장포 행사로 그 시작을 알렸다.

13일에는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식을 시작으로 회령포와 이순신의 관련성을 역사적으로 고

장흥군 회진면서 제1회 축제 3일간 ‘성료’ 해신제례·학술 심포지엄 등 프로그램 진행

증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참전했다가 전사한 조상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씻김굿이 진행됐다.

이어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 교지를 받고 장흥으로 내려와 가진 회령포 결의, 즉 취임식을 재현하기 위한 임성식을 개최하고 명량대첩 12척 배를 수리했던 장소라는 의미를 담아 12척의 어선을 활용해 해상퍼레이드를 진행했다.

개막식에서는 이방북장을 한 전민사회자가 진행한 이색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부대행사로 는 청소년 백일장, 도

전 골든벨, 강강술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시간, 승선체험, 형틀체험, 가족 화합게임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순승현 회진면장은 “올해 축제를 발판삼아 내년부터는 더욱 참신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진도군은 겨울철 건강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2018년산 햇김이 지난해보다 4일 빠른 11일부터 위판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고군면 회동 위판장에서 위판되고 있는 햇김.

진도 햇김 위판 시작...1325억 수익 예상

게르마늄 등 미네랄 풍부

진도군은 겨울철 건강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2018년산 햇김이 지난해보다 4일 빠른 11일부터 위판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군면 회동 위판장에서 위판된 햇김은 곱창김(깃바다물김)으로 23~24도에서 잘 자라는 조생종이다. 위판되는 햇김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진도산 곱창 김은 게르마늄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맛과 향이 독특하고 우수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일반 김과 달리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김 양식 면적이 1만5327ha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총생산량도 22%를 차지하고 있는 진도 김은 현재 204여가에서 10만1533kg을 생산하고 있다.

김 위판고는 ▲528억원(2015년) ▲918억원(2016년) ▲1233억원(2017년)으로 올해는 1325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김 품질 향상을 위해 무면허 불법양식시설과 어업권 정비 작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 천관산 역사제 성황리 마쳐

130만㎡ 능선 일대 은빛 물들어...이달 말까지 감상 가능

지난 15일 장흥군 천관산 정상(723m) 역사평원에서 열린 ‘제24회 천관산 역사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천관산 정상 130만㎡ 능선 일대를 은빛으로 물들인 역제는 다도해의 풍경과 천관산 기암괴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고의 장관을 이뤘다.

올해는 강수량이 적었던 이유로 역제가 능선 전체에 고르고 풍성하게 피어, 가을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역사제 당일 오전 11시, 천관산 정상 연대봉에서는 역사제례와 역

새야가씨 선발대회가 열렸다.

이날 역사야가씨 선발대회는 역사야가씨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역새야가씨 전에는 이유지(24세, 경기 동두천시), 선 김윤미(26세, 전남 장흥군), 미 문화주(47세 광주 서구) 씨가 선정됐으며, 손영하(24세, 전남 장흥군), 조양일(56세, 전북 군산시) 씨가 인기상을 받았다.

역새는 가을이 여물어 가는 9월 중순께 피기 시작해 10월 중순에 절정을 이루며 색깔은 햇살 강도와 방향에 따라 하얀색이나 잿빛을 띤다.



올해 천관산에서는 10월 말까지 은빛 역새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 군수는 “천관산 역사제 불결은 앞으로가 더 큰 장관을 이룬다”

며, “10월 장흥에 오셔서 은빛 역새는 물론, 20일 열리는 2017대한민국 통합의화합대회도 관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시,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체험 ‘초대’

여수시가 자연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에 가족들을 초대한다.

시는 오는 21일 돌산읍 송시마을에서 부모와 고등학생 이하 자녀 80명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농촌체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체험은 구운 찰떡 만들기, 피충류박물관 관람, 휴대전화 동굴 먹이주기 미꾸라지 잡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

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오는 19일까지 여수시건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yeosu.familynet.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여수시건강지원센터에서 전액 지원한다.

상반기에 갯벌생태체험을 주제로 열린 가족문화체험도 참여가족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시, ‘시민편의 우선’ 관광정책 만든다

여수시가 시민편의가 우선인 관광정책을 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여수 관광에 대한 의견을 시민에게 직접 듣고 이를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원도심·여문지역·여천지역 등 3개 권역 시민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제4기 100인 시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광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익기부로 형성된 연

10억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민과 관광산업이 상생하도록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2년 연속 관광객이 13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9월말 기준 1170만 명을 넘는 등 관광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선전 다짐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에 무안군은 지난 13일 무안읍 소재 녹색한우타운에서 박준수 부군수를 비롯해 무안군체육회 관계자, 핸드볼?검도 출전선수와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선수단 환송행사를 가졌다.

무안군 선수단은 그동안 전국체

육대회를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해왔으며, 특히 전지훈련 및 각종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의 선전이 기대된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환송행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대회를 마치는 것”이라며 “긴장하지 않고 연습한 만큼 기량을 발휘한다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군은 이번 대회에 백제고등학교 여자 핸드볼과 무안고등학교 남자 핸드볼 팀, 그리고 무안군정 소속 검도단이 출전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